기조발표

아태지역 무형유산의 동질성과 다양성:
옻칠공예문화유산의 아시아적 가치와 보존전략을 위하여

배기동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아태지역 무형유산의 동질성과 다양성: 옻칠공예문화유산의 아시아적 가치와 보존전략을 위하여

배기동 (한양대 명예교수)

무형유산의 현대적 의미와 보존의 관건

무형유산은 인간의 지혜와 감성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표현될 수 있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물론 어떤 것은 사라지고 또는 사라지려 하고, 머지않아 사라지겠지만 아직도 사람의 뇌리에서 그리고 손끝에서 그 문화의 여운이 이어지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유산의 보호와 보존은 이제 본격적인 디지털 문화 시대로 들어선 인류에게는 무한한 미래자원이자 인류가 즐길 수 있는 인간의 흔적이다. 왜냐하면, 디지털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전통문화는 오래된 인간의 기억을 담고 있어서 인간의 감성이나 인간다움을 느끼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경제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형유산들은 그 형태가 다르기는 하여도 그 본질적인 기능은 같은 것일 수가 있다. 특히 인접한 지역에서는 문화전파로 인하여 그러한 문화들이 확산되고 또는 받아들이는 집단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모습을 갖춘 것들이 탄생하여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성을 공유하는 자산으로서 중요하고 동시에 인간의 사고의 다양성의 표현으로서 각 집단이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지는데 의미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각 문화집단 간에 공존하는 또는 공통적인 무형문화를 어떻게 보존하여야 할 것인지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큰 화두일 것이다. 그동안 동일한 무형유산이지만 어떤 지역의 것은 등록되고 또는 다른 지역은 그 가치가 뛰어남에도 동일한 것이라는 이유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조금만 소홀히 하면 사라지게 마련인데 사라지게 되면 결국 그 사회의 문화의 총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며 미래적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라는 것은 아무리 창의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숫자가 적으면 사라지게 마련이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전통 무형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유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여 사회를 설득하고 그 현대적인 효용을 개발하여 전략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문화를 가진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창의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각 사회는 이러한 유산들이 시들어서 사라지지 않도록 공동체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은 전통의 계승이라는 당면과제로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디지털시대에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서 유의할 점은 결국 그러한 무형유산이 화

석화되어 고정된 문화체제로서 남게 되어 현실에서 도태되는 일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의 문화로서 존재하되 그 표현의 방식은 끊임없이 창의적인 변신을 함으로써 새로운 세대의 감각이나 수요에 맞추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의 형태도 하나의 다양성으로서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대 간에 전수되는 것은 그만큼 전통에 기반한 현실적인 효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노력이 바로 세계무형유산제도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의 연속성과 고유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많은 나라와 다양한 문화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지리적인 환경 때문일 것이다. 지리적인 연속성도 있지만,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다른 문화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문화들은 대단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지난 만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인간의 이동과 문화의 흐름이 이 지역 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진 관계로 이웃하는 지역에서는 공유된 문화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교통로로 연결된 지역에서는 주민의 접촉이 빈번하고 그러한 문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 지역의 무형문화 유산이 세계의 다른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서 유용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인 공통성 또는 연속성이 보이는 반면에 동일한 문화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와 의미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보이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의 출현 양상은 인류 문화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보존의 방식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이점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를 통해서 집단의 상호 이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전통문화들은 오늘날 급격한 사회개발로 인해서 많이 사라지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는 구미의 선진국의 토착문화와는 달리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온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오늘날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것을 고려할 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각국이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협력관계 위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찾는다고 하면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개발의 자원으로서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내에서는 한·중·일과 같이 보존에 오랫동안 노력하여 온 지역이 있는 반면에 이제 막 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또는 방치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이러한 국가들이 전략적인 협력을 하게 된다면 인류의 보편적인 유산으로서 그 현대적인 효용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칠기 문화가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과 보존전략을 마련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바로 이 지역에서 널리 나타나는 문화이자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서양어로 라카 lacquer라는 말로 통칭하는데 이 말은 '많다' 또는 '무한'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에서 온 것이다.

2 우루시올 urushiol이라고 하는 즙을 생산하는데 바로 옻이라고 부는 것이다. 독성이 있는 떡갈나무 종류, 중국의 중남부와 한반도 남부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자생하는 활엽수 나무 종류이다.

3 장용준 2019. 옻과 옻나무 그리고 옻칠, 고대의 빛깔 옻칠. 국립김해박물관.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2017년 간 재인용.

4 김원중 역.2016. 한비자 제왕학과 법치의 고전.

5 史記사기 貨殖화식열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칠기 문화의 역사와 지역적 다양성

칠기는 서양에서는 볼 수가 없는 생활 예술품으로서 고대로부터 아시아의 각지에서 꾸준히 생산되고 사용되어 온 공예품으로 아시아문화의 보편성을 잘 나타내는 유-무형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칠기의 역사는 아마도 신석기시대에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옻나무가 많이 자라는 중국의 남부나 인디아, 동남아지역도 인간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이 나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도를 강구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칠기가 가지는 다양한 기능적인 특성, 즉 내구성, 조소성, 방습과 흡습 그리고 항균성을 고려한다면 선사시대 생활에서 가장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고 시대가 흐르면서 조소성이 활용되기 시작할 무렵에는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감각적인 반사 빛으로 만드는 예술성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가구나 그릇 등의 기물에 표현된 생활 예술적인 면에서 칠기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옻칠[1]의 사용은 옻나무 (Toxicodendrum vernicifluua, 또는 Rhus vernicifuua Stokes[2])가 자생하는 지역에서 신석기시대에 인간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농경과 채집으로서 생계를 운영하던 집단에서 생태환경 내에서 자생하는 식물에 대한 정보는 생존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식료로서 그리고 약료로서 또는 생활에 필요한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선사인들은 지속적으로 주변의 자원을 탐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태적응 과정이다. 그래서 일찍이 신석기시대부터 옻의 사용 흔적이 보이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만 년 전 이전의 죠몽토기 유적에서도 옻칠을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는데[3] 이는 일본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칠기에 대한 기록이나 유물은 중국에 많이 남아 있다. 중국에서도 일본보다도 좀 늦은 시간대이기는 하지만 칠기는 신석기시대부터 사용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절강성의 하모도 유적에서 칠완 강소성 오강 단결촌 유적에서 출토된 칠회채도배 등은 적어도 6천 내지 7천 년 전의 것으로서 아시아 칠기로서 가장 오래된 것들이다. 한비자의 기록[4]을 보면 순황제가 제기를 만들 때 '외부는 검은색 내부를 붉은색으로 칠해서 사용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을 보면 중국의 역사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춘추 전국시대의 칠기들은 중국 고대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예술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도 한(漢)대가 되면 칠기 문화가 크게 발달한 것을 알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화려한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중국에서는 제사용기 뿐 아니라 악기나 무기나 마차구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었고 기법 역시 다양한 기법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고고학적인 유물에서 알 수 있다. 장식과 문양도 다양하여 당시의 화려한 예술적인 경지를 보여주며 또한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그림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작과정에 종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세세히 기록한 것을 보면 그 공정 자체가 대단히 정교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엿볼 수 있다. 오늘날도 칠기는 고가품이지만, 고대에도 대단히 비싼 제품으로 고급관리의 봉급을 절반 이상을 주어야 그릇 한 개를 살 수 있었다는 것[5]은 고도의 기술과 예술적 감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상류층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고대 칠기 기술이 한반도로 전해져 발전하게 되었고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도 확산되어 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확산의 과정에서 각 지역의 재래의 기술과 합쳐져서 고유한 기법들이 각지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각 지역의 문화적인 전통과 재료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지역의 칠기가 중국에서 유래된 것은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진사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서남부 지역, 광시나 귀주 지역의

타이 족이 이동하면서 전래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대체로 13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베트남에서는 중국과의 교류에서 일찍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태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북부 산악지역에서 일찍부터 제작하기 시작하였으며 나중에 16세기경에 미얀마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화려한 색조의 칠기들이 많이 제작되고 태국에서는 라이 롯 남(Lai lot nam)이라고 하는 특수한 제작 기법이 만들어져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에서도 이러한 각 지역의 전통적인 책색을 한 옻칠제품들이 관광상품으로서 지역의 경제적인 자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동아시아 삼국의 칠기의 전통을 보면 중국기술이 전래되어 토착기술과 융합되어 발달하게 되는데 각 나라별로 아주 뚜렷하게 독특한 칠기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은 바로 척홍(剔紅)칠기라고 하는 조(彫)칠기, 즉 세대를 거듭하며 두터운 칠을 입혀서 조각을 하는 칠기들이 나타나고 일본은 옻칠 그림을 그려 장식하는 시회(蒔繪) 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지만 고대 청동기시대부터 성용되기 시작하는데 날랑을 통해서 고도로 발달한 중국 칠기가 들어와서[7] 고대 사회에 널리 성용하게 되어 고분들에서 나타나는데 고려 시대에 들어서 조개를 이용해서 장식하는 나전(螺鈿)칠기가 독특하게 발전한 것이어서 동일한 칠기문화라고 하더라도 예술적으로 다른 감각을 가지고 발전시켜 온 것을 알 수 있다.[8] 지역적인 특성이 뚜렷이 보이는 것이 바로 칠기 공예인 것을 알 수 있다.

옻칠 공예의 잠재적인 기능과 기술융합을 통한 미래

옻칠은 대단히 신비한 물질임에 틀림없다. 옻칠 공예는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총체적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과학성의 한 예로 중국 후난성의 마왕퇴에서 발굴된 여성 미이라[9]가 칠기관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는데 발굴 당시 시체가 전혀 부패되지 않았고 주사를 놓았을 때 혈관을 통해서 수액이 움직였다는 보고가 있다. 이것은 옻칠이 유기물의 보존에 특별한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방충과 향균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유기물이 잘 남아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고대 유적, 대표적으로 낙랑의 고분들이나 무령왕릉, 황남대총 등의 중요한 유적들에서 옻칠한 유물들은 남아서 그 문화의 정수를 알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동안 옻칠의 예술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주로 가지고 있었지만, 옻칠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기능이 잠재되어 있어서 앞으로 다양한 용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옻칠은 흔히 신비의 물질이라고 표현[10]할 만큼 그 잠재적인 기능이 많다고 알려져 있고 또한 아직도 재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습이나 보습 등의 기능 이외에도 전자파의 흡수나 현대 공간 내에서 유발되는 미생물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들이 제기되고 있다. 동의보감과 같은 기록에도 약리적인 작용을 언급한 의서들이 많아 남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 효능을 입증하여야 하겠지만 앞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한 가지 옻칠 공예가 가지는 잠재적인 가능성은 바로 기술의 복합성이다. 옻칠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전문적인 단계로 구분되고 각 단계별로 각각의 장인집단들이 있고 그러한 전통은 고대 기록에서도 보인다.[11] 그리고 또한 각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기술이

6 김인아 미얀마칠기의 기원과 발전, 동남아선교뉴스레터 62.

7 김종태 1989. 한국과 중국의 칠기공예, 한국칠기이천년. 국립민속박물관 간.

8 임영주 1989. 한국칠기 의장문양의 시대적 흐름과 특성, 한국칠기이천년. 국립민속박물관 간. 이칠용 1980. 칠공예, 한국나전칠기보호협회.

9 웨난 岳南, 마왕퇴의 귀부인. 이익희 역 2006 (일빛 사 간 한글번역본).

10 이오희 2020. 천년기술의 보존 옻칠문화재. 주류성 출판사.

11 이호관 칠공예, 신편한국사 조선의 초기문화; 이경미 1992. 낙랑 고분출토 칠기에 대한 일고찰, 한국 상고사학보 11.

12 이칠용 1980. 전게서.

13 황숙경 2016. 김성수 통영옻칠 미술관장, 경남공감 43; 김성수 2018. 〈The Korean OTTCHIL Art Exhibition〉, 2019 From Traditional to Contemporary 아트전 베트남 문광부. 2020. 김성수 옻칠회화展.

있고 각 나라별로 그러한 기술적용과정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옻칠 문화의 글로발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각 기의 개별기술 자체가 하나의 무형유산으로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고 그 조합상에 따라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저 전통무형유산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옻칠기술은 적용하는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되었지만, 사람들이 다루는 거의 모든 재료들과 혼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며 또한 각 재질의 수명이나 또는 사용의 효율성과 예술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점 역시 그 잠재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고대로부터 나무뿐 아니라 종이나 짚, 실 등의 유기물 재료 뿐 아니라 쇠나 청동 그리고 도자기나 토기 등등의 모든 재료들에 적용되고 있다. 단순히 그릇뿐 아니라 문방구나 가구, 마차나 악기 그리고 심지어 가옥에 옻을 입히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기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이다.[12] 그래서 여러 가지의 기술문화와 함께 융합되어 나타나는 기술로서 옻칠 공예가 있는 셈이고 이러한 조합상은 집단과 개인 그리고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조합상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다.

옻칠이 가지는 또 다른 하나의 엄청나게 큰 잠재력은 현대미술과의 접목일 것이다. 제작과정의 각 단계의 공예적인 기술들도 예술성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칠이 가지는 색과 빛의 특성이다. 화려하기도 하지만 은은한 빛은 깊이가 있고 채도가 높은 점에서 현대미술적인 표현에 아주 독특한 색감과 질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감성을 불러 일으키는 점이 현대미술의 응용에 새로운 장르로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고대의 칠기에 적용되는 다양한 모티프나 표현법과는 다른 현대미술의 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칠기라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생활 과학적인 이점을 같이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대 도시사회의 주거공간에서 대단히 유용한 예술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시작되었지만[13] 앞으로 이 새로운 예술 장르의 발전은 앞으로 옻칠공예가 무형유산으로 가지는 잠재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대칠, 일본의 우루시, 베트남의 산마이, 한국의 옻칠이라는 다른 이름의 칠기공예문화가 현대미술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된다면 시장성이 크게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옻칠공예는 다양한 전문장인 집단이 단계별로 작업하는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작업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무형유산이다. 그리고 실생활 용기에서부터 예술에 이르는 다종다양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문화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가치가 대단히 높은 무형문화유산인 것으로 기대된다.

보존과 전승의 국제협력전략

무형유산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우리의 현실적인 생활에서 창의적으로 적용되어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전략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오늘날도 실용성이 높아서 각 나라마다 공동체의 지속가능 방안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옻칠기술공예이다. 그래서 관련된 개별공동체들의 관심이 깊을 것으로 기대한다. 옻칠공예의 나라별 활용을 보면 옻칠공예 집단을 국가적으로 보호하여 각 공동체들이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하게 함으로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전략의 하나로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4 정명호 1991. 한국전통공예의 세계시장화를 위한 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그런데 대체로 고대의 기술들을 창의적인 활용보다도 원래의 전승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다. 이러한 점에서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개발하여 각 옻칠공동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언급한 바로 기술적인 단계별로 다양한 무형유산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과 다른 재질이나 목적에 부합되는 방안들을 개발하여 대중적인 이용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앞으로 디지털 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가능하기 때문에 무형유산보존의 국제적인 과제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기술적인 확장 만이 아니라 예술적인 장르의 개발은 실용성을 겸비한 생활예술로서 그 적용의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그런데 이러한 실용성의 개발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아시아의 각 나라마다 기술적인 격차가 있고 또한 경제적인 수준이 달라서 이러한 기술이 실생활의 효용이 커지지 않는다면 연구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한국에서도 옻나무 농장을 만들었다가 폐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례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노동력의 문제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아직도 전통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국가에서는 새롭게 창의적인 개발을 하기에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개발이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실용성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 각국이 연합하여 공동의 과제로서 상호협력하여 개발하는 전략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면 옻칠공예는 아시아 공동의 무형유산으로서 미래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옻칠공예품들은 고대나 중세 역사상에 가장 고귀한 물건으로 각 나라마다 최고급의 기술 개발을 해왔고 각 나라별로 아름다운 걸작 예술품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도 각국별로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또한 지속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왔다. 한국에서도 일찍부터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옻칠기술의 세계적인 확산을 위한 전략 수립을 고심해 온 것이다.[14] 이러한 현실적인 바탕 위에서 앞으로 보존과 창의적인 발전의 과제로서 아시아 제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옻칠의 신비함과 화려하고도 고유한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뿐 아니라 새로운 서구 선진국 시장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옻칠공예의 보존과 개발을 국가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각 국이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을 강구하는 것도 고대의 신비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옻칠공예, 국제적 수요 창출 전략으로서 문화적 수월성과 다양성

아시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옻칠공예는 그 기술적인 과정과 표현의 다양함으로서 각 국별로 독특한 전통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한 종류의 공예예술이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기술적인 과정이 복잡하고 또한 뛰어난 예술성을 겸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인이 한국 중세 고려의 나전칠기를 보고서 세밀가귀(細密可貴)라는 표현을 한 것은 그만큼 정신과 고도의 기술을 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시아 고유의 문화로서 보편성이 있는 셈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각국 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문화다양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화인 셈이다. 기술적인 복잡성과 고도의 예술성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대단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고대나 현대에 최고의 공예예

15 조윤주 2009. 통영12공방이야기, 디자인하우스 간.

술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되지 않는 문화는 금세 도태되어 화석화되는 것이 인류 문화사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문화는 누적되고 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변신하여 그 효용성이 현대화되지 않는다면 사라지기 마련이고 사라져가는 무형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인류의 숙제이다. 다행히 옻칠기술과 예술은 현대에 있어서도 실용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개발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 단계의 사회적인 관심과 개발전략이 있으면 크게 번성할 수 있는 장르의 기술과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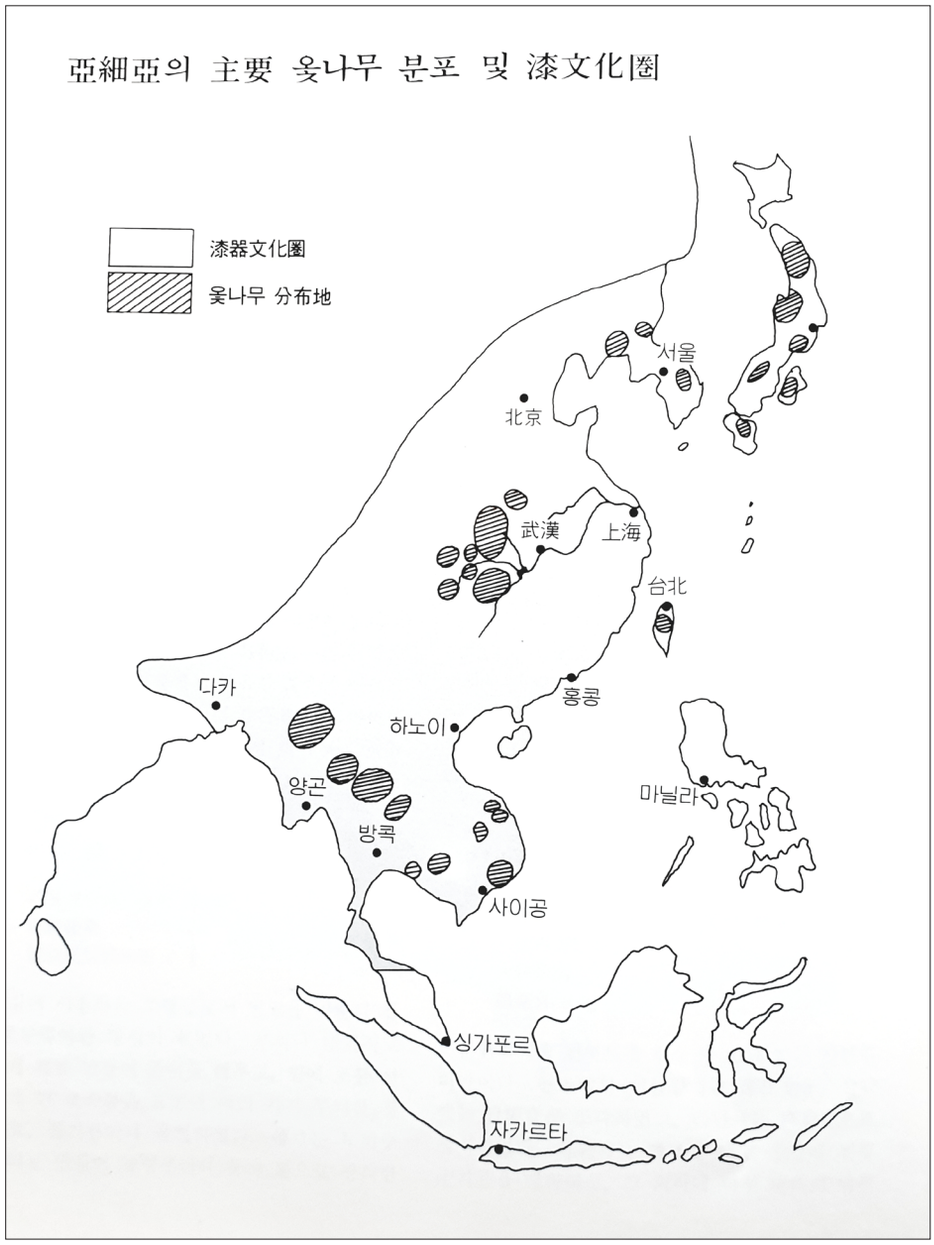
옻칠공예는 고급문화로서 상류층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해당 사회의 경제적 안정화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통영수군영에 12공방[15]에서 이러한 옻칠기술집단을 두고서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사회적으로 예술성과 실용성이 높이 평가되어 귀하게 취급되었던 물건으로서 수요가 지속됨으로서 지역에 경제적 흐름을 만드는데 역할을 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가치순환체계를 복원하게 된다면 분명히 해당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판을 만드는데 무형유산으로서 옻칠공예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옻칠공예는 그 적용 범위가 무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또한 그 잠재적 실용성을 감안한다면 현대사회에서도 경제적 활용성이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들이 협력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늘려가고 현대사회 속에서 실용성을 창의적으로 개발한다면 아시아의 무형유산으로서 영구히 전승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발전이 곧 세계무형유산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기술의 융 · 복합적인 개발이나 현대적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 또는 고대의 옻칠 적용기술처럼 현대의 다양한 기물에 적용하여 내구성이나 예술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국제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공동 전략을 만들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의 구매력 있는 사람들에게 옻칠기들이 가지는 예술적 가치와 실용성을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국제현대옻칠아트전, 국제옻칠문화엑스포나 국제옻칠문화정보교류센터의 설치 등을 강구한다면 옻칠기의 범용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옻칠무형문화 유산 영구적인 보존방안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옻칠공예, 아시아문화공동체의 아이콘

오늘날 글로발 사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동의 언어는 바로 경제이다. 좀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모든 나라의 화두이다. 그래서 현대 디지털글로발사회는 정보와 이동이 확대되지만 나라별로 견제와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글로발 상황에서 공동의 문화언어를 개발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금이 되는 것이다. K-pop처럼 반향이 큰 음악이나 영화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것이 대중적인 무언의 소통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국경을 초월한 공감대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지역에서 옻칠문화의 연속성과 지역적 다양성은 오래된 역사적인 문화행위로서 문화적 공감대와 대중적인

공명을 가져올 수 있는 공통의 무형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 문화가 전 세계가 즐길 수 있는 보전과 활용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면 아시아 문화의 아이콘으로서 사회적인 번영뿐 아니라 정신적인 유대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칠기이천년 도록 (1989)에서